

광주·전남 4월 물가도 3~4%대 상승...과일값 고공행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4% ↑ 전국 평균은 2%대 둔화 배 상승률 168% 역대 최대...양배추 55%·배추 24% 올라

정부의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 실시 등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물론, 양배추, 배추 등 채소류의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114.61과 114.99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 4% 올랐다.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1

년부터 최근까지 3년째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1년(102.57) 전년보다 2.6% 오른 뒤, 2022년(107.79·5.7% ↑), 2023년(111.76·3.7% ↑)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지난 3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1년 102.62로 전년보다 2.6% 올랐고, 2022년(108.43·5.7% ↑), 2023년(112.20·3.5% ↑) 등

크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비 4.1% 오른 뒤 10여년간 매년 비슷하거나 1% 안팎으로 올랐던 것과 비교해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올해 역시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매월 3% 이상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역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체험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광주시는 지난달 기준 117.28로 전월(116.92)과 전년 동월(113.20)에 견줘 각각 0.3%, 3.6% 상승했고, 전남은 117.30으로 전월(117.16)보다 0.1% 올랐고 전년 동월(112.83)보다는 4.0% 높았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부족한

공급량으로 가격이 비싸진 과채류를 비롯한 신선식품군이 꼽혔다. 광주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기준 138.43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전월(140.30)보다는 1.3%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116.80)에 비해서는 18.5% 높았고, 전남 신선식품지수는 164.10으로 전월보다 3.6% 감소하는 등 광주보다 하락폭이 컸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116.80)에 비해서는 37.1% 높았다.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과일과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생육하지 못한 채소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신선식품지수가 전월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채류를 중심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과와 배 등의 가격이 끊없이 치솟아 광주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기준 173.54를 기록해 전월(172.92)과 전년 동월(119.22)에 견줘 각각 0.4%, 4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배는 전월 대비 17.6%, 전년 동기보다는 168.8% 올라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사과 역시 정부와 유통업체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94% 올랐다. 더불어 최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양배추의 경우 전년보다 54.8% 상승했고, 배추 역시 24.1% 올라 신선식품지수 상승에 큰 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2.8%) 이후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인 뒤 처음으로 2%대로 내려섰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퇴직연금 IRP 수익률 은행권 전체 1위

1분기 수익률 17.58% 달성 이달부터 수수료도 5% 인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4년 1분기말 기준 최근 1년간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 비포장형 상품 운용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2024년 1분기말 기준 IRP 원리금 비포장형 상품 수익률(최근 1년간)은 17.58%로, 은행권 평균인 13.42% 대비 4.16%p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광주은행의 수익률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모두 포함한 전체 4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도 2위에 달하는 기록이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도 IRP 원리금 비포장형 상품 수익률 비교에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에는 은행권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이달부터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5% 인하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들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택을 적용받아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광주은행이 퇴직연금 성장지수펀드(ETF) 상품군 확대를 통해 고객들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주요했다"며 "광주은행을 찾아주시는 분께 앞으로도 적극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로 원활한 노후 자산 확보 및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호타이어 KATC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북미 러버뉴스 1000여기업 평가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북미 러버뉴스(Rubber News)에서 선정한 '2024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인적 자원 관리 기관인 워크포스 리소스 그룹이 북미 고무 생산 및 가공 업체 약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9개 기업을 선정했다. 금호타이어 북미기술연구소 'KATC(Kumho America Technical Center)'는 1990년 미국 오키오주 애크론(Akron)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북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차드 쿠나 KATC 소장은 "금호타이어의 KATC가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금호타이어는 공정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엔지니어들이 제품 개발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년 연속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사람 중심의 회사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호타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율 '밸류업'에 담긴 지배구조 개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 효과 있을까

금융위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2일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등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는데, 기업들의 호응-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상장사들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과 원칙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담았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 선정과 관련해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제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지표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금융위는 밸류업 제도의 양대 축인 재계(상장사)와 자본시장 간 시각차가 가장 벌어졌던 '지배

구조'를 대표적인 비재무지표로 언급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국내 증시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구조는 대표적인 비재무적 요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모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과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을 들었다. 이런 지배구조 이슈로 시장 우려가 있을 경우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급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쪼개기 상장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낳아 왔다.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역시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돼 왔다. 오히려 일가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만 많은 배당금을 뿌린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있을 경우 상장사들은 상세한 설명·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재무·비재무적 요소들을 포함한 '밸류업 계획'은 이사회가 수립·이행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누적 33억원

수혜 인원 3200명 넘어서

광주 현직법인 광주신세계가 올해도 지역인재를 위한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신세계는 2일 본관 대표이사실에서 '제 29기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영천 관리이사, 김은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신세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희망 장학금 7000만원을 기부했다.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지역 상생을 위해 현직법인으로 출범한 뒤 지역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33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인원은 3200명을 넘어서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현직법인으로서 희망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사



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30여년간 광주신세계에 보내주시는 지역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희망 장학금 외에도 서구장 학재단과 록스장학회, 한미음장학재단, 무릎장학재단 등과 협력해 다양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이들 단체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올해만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인천공항서 갤럭시 S24 무료 대여 서비스

삼성전자는 오는 6월 9일까지 인천공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 2일 밝혔다. 대여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14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모두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대여 제품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픽업 데스크와 제2여객터미널 3층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수령할 수 있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잔여 수량이 있을 경우 현장 대여도 가능하다. 대여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사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행지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로 찍은 사진



2일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과 이용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갤럭시 S24 울트라, 여행상품권 50만원, 모바일 유료 쿠폰 등을 제공한다. 제2여객터미널 갤럭시 스튜디오에는 '갤럭시 AI'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통역, 생성형 편집, 노트 어시스트, 브라우징 어시스트, 서클 투 서치 등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열 광주지방보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구매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등은 ▲다수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 평가기준 완화 ▲MAS 가규류 인도조건 개선 ▲학교 졸업앨범 품목 MAS 활용 확대 ▲3차 단계계약시 지사를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 제도 활성화 ▲협동조합 공동브랜드 제품 MAS 참여 ▲MAS 계약단계 조정시 협동조합 자료 활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열 광주지방보달청장은 "오늘 논의된 애로사항 등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

소기업 구매 확대와 판매 공공기관 등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최근 원자재가격과 고금리·고물가 등 급격한 제조원가 상승으로 적자납품이 지속되며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물가변동이 제대로 반영된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받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3.65 (-8.41)
↓ 코스닥	867.48 (-1.45)
↓ 금리(국고채 3년)	3.509 (-0.020)
↓ 환율(USD)	1375.90 (-6.10)